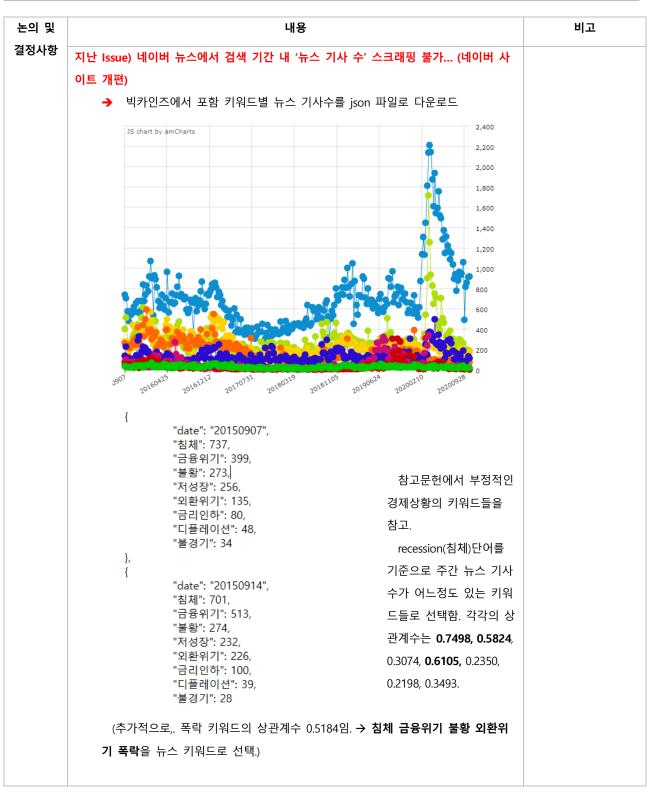
## 9주차 회의록

| 회의일시 | 2020년 11월 2일 (월요일)                   | 장소 | 온라인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
| 팀원   | 박채린, 이혜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회의안건 | • (뉴스기사수 변수) 빅카인즈에서 포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     | • (포털트렌드 변수) 카카오, 네이버, 구글 변수의 유의성 확인 |    |     |



## [코드]

트렌드 데이터들을 확인[코드]했을 때, 카카오 트렌드 변수는 CCI와의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작음 → '과연 실제로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, 사람들이 포털에 경제를 검색하는지 '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고 보여진다.

따라서, 카카오 데이터를 단독 변수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, 방법1. 구글, 카카오, 네이버 변수의 **평균을 계산하여 하나의 변수로 활용** 

- · 2015년 ~ 2016년: 구글 ratio
- · 2016년 ~ 2017년: 구글 + 네이버의 평균 ratio
- · 2018년 ~ 현재: 구글 + 카카오 + 네이버의 평균 ratio
- (-) 구글 변수가 높은 편이므로 평균 ratio을 활용하면, 구글 데이터만 활용하는 2015-2016년이 높은 값을 갖게 된다.

방법2. 평균 사용대신 CCI와의 음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구글만 사용

- (+) 구글변수는 cci와 음의 상관성 강함(-0.622731)
- (-) 2015년 9월부터 변수로 활용할 수 있으나, 경제지표에 활용할 변수가 구글 1개와 뉴스 키워드포함 기사(5개변수)로 줄어든다.

방법3. cci와 상관성이 약한 카카오를 제외하고 <u>네이버와 구글</u>을 다른 변수로 16년도부터 사용

- (+) 구글변수와 네이버변수 모두 cci와 음의 상관성 있음(구글: -0.649485, 네이버: -0.463341)
- (+) 2016년부터는 변수로 모두 활용할 수 있음
- (-) 단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, naver에 대한 p-value가 매우 크므로, naver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음. (다중 공선성을 보임)

## 공지사항

|                  | 계획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0 주차(11/2 ~ 8)  | 11/4 교수님 미팅 전  ● |
| 11 주차(11/9 ~ 15) | ● 경제 단기 지표 생성    |

| 12 주차(11/16 ~ 22)   | 11/18 교수님 미팅<br>● 경제 단기 지표 생성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3 주차(11/23 ~ 29)   | 프로젝트 완성 목표><br>● 유의성 확인(소비자심리지수와 비교)                  |
| 14 주차(11/30 ~ 12/6) | 12/2 교수님 미팅<br>● 발표 준비 및 영상 제작<br>12/11 프로젝트 발표 영상 제출 |